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연간보고서

2009 Annual Report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2009년,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009년도 센터 이용 현황

이용 연인원	19,720명
숙박	10,899명
주간이용	3,150명
정서지원	5,671명

“더욱 편안하고 깨끗한 치료환경을 제공합니다.”

대도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지방 거주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치료과정 적응을 돕습니다.

[소아암 가족 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009년도 치료비 지원 현황

이식비	42명 / 385,825,177원
치료비	167명 / 900,832,195원
재활치료비	29명 / 61,513,880원
외래치료비	102명 / 103,104,890원
헌혈증	8,780매 / 35,224,550원
간접치료비	52명 / 69,908,820원

“최상의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고액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소아암 어린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아암 어린이가 완치하여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392명에게 총 1,556,409,512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009년도 정서 지원 현황

학습지원	59명 / 28,334,500원
가발지원	19명 / 15,226,330원
집단프로그램	2,177명 / 68,288,858원
가족지원	3,916명 / 174,323,512원
완치자지원	17명 / 32,723,890원
심리치료	306명 / 60,409,895원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마음을 나눕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암 발병으로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 6,494명에게 총 379,306,985원의 정서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009년도 정보 지원 현황

교육자료 _	26종 / 9,583부배부
소아암 교육 _	16회 / 471명
보호자 교육 _	7회 / 43명
미니도서관 _	382명
아동홈페이지 _	방문 4,035건

“올바른 소아암 정보를 제공합니다.”

질환과 치료과정에 대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일반인들의 편견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09년,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소아암 연구를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소아암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완치율이 약 80%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아암 완치를 위해 소아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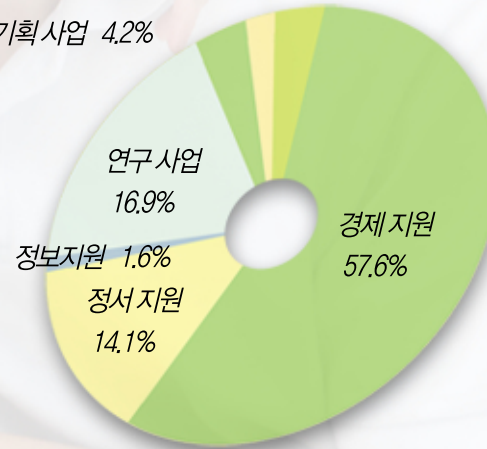
[총 456,601,500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소아암 어린이들의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센터운영 2.4% 컴퓨터운영 3.2%
 기획사업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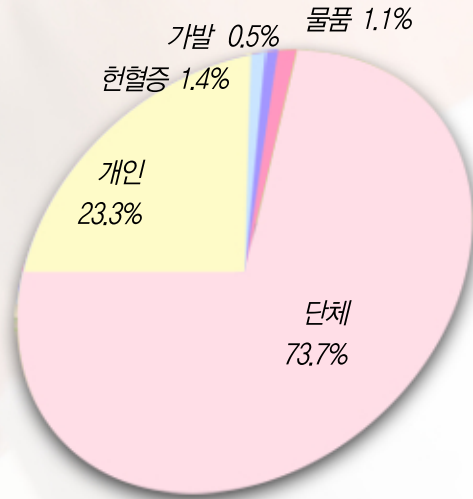
구 분	금 액 (원)
사업비	2,701,906,545
사무비	530,244,310
재산조성비(비품)	20,652,200
법인세	7,284,930
기타(예수금)	876,360
합 계	3,260,964,345

2009년 총사업비 = 2,701,906,545원

2009년,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소아암 어린이들의 큰희망이 되었습니다.”

구 분	금 액(원)
재산수입	49,622,542
후원금 수입	3,204,327,418
과년도 수입	6,172,010
보조금 수입	1,900,000
기 타	4,019,855
합 계	3,266,041,825



2009년 모금총액 = 3,204,327,418원



사소한 것에 행복해질 수 있나요?

함암치료가 끝나고 학교에 복학한지도 벌써 2개월이 넘어가려 하네요.
2년 전, 처음 서울에 갔을 때만해도 정말 암담했는데 말이죠.

지금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물 한잔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곤 어머니를 바라보고 웃습니다.

이게 행복인 걸까요?

예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행복해질 수 있다니 말이죠.

요즘은 시험기간입니다. 저희 지역이 비평준화여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입시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I don't care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니까요.

처음 학교생활에는 나이와 제 외모로 아이들이 저를 많이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잘 어울려지내고 있습니다. 어떨때는 말을 놓아 당황도 합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영어연극대회에도 나가고, 부반장도 되고), 즐겁습니다.

제가 다시 이곳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주위의 이웃 분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몸 건강히 잘 지내겠습니다.

- 박일환 드림 (소아암 치료 종결자)





희망을 나누어 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88-14 인설빌딩 4층 대표전화: 02.766.7671 홈페이지: www.kclf.org